

소련경제와 한소경협

金 永 郁

(中央日報 이코노미스트局 기자)

소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소극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진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무역관련자들은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무역협회사나 해외경제협력위등 무역관련전문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소련 협력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의 한 한국인교수도 「소련의 개혁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포함해 불안요인이 많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 있는 소련체제가 굳어질 때까지는 한국의 대소련 경제협력이 제체도에 오르기 힘들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은 우리뿐만 아니다. 지난해말 세계은행이라든가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서유럽개발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같은 세계 유수의 국제경제기구들은 보고서를 내어 「소련은 관료주의체제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소련에 대규모의 차관은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련에 진출하는 우리 업체사람들 일단은 의견이 다르다. 현대그룹의 정주영회장 같은 이는 최근 한소경제협회총회에서 「남들이 멈칫거릴때 우리가 한발 앞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업체가 소

련진출에서 일면 과잉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물론 한소교경협자금 30억달러내에서 무역이 행해지기 때문에 받을 돈이 확실한 탓이겠지만 소형전동기와 전화선의 경우 우리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한 종합상사가 소련측과 교섭하여 수출입창구로 지정받으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과 기업행동중 어느 것이 보다 우리에게 유리한지는 그야말로 神만이 알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외국, 즉 선진국들은 대소련 진출을 머뭇거리고 있다. 소련이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소련특수를 겨냥하고 동서협력의 침병을 자처하면서 소련시장의 문을 두드렸던 서방 각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다. 소련측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합작회사는 모두 28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기업설립을 위해 실제로 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1000개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제조업체가 아닌 서방 수입품의 판매대리점이나 정부 특혜를 노린 소련 국내 기업들의 대행사들이므로 알려지고 있다. 또 초창기의 열기와는 달리 소련내에서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도 하고 사업추진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최근 외신들은 전한다.

이처럼 서방 기업들이 대소련 진출을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정세의 불안때문이다. 보수파와 급진적 개혁파간의 갈등이 심한데다가 고르바초프가 이 둘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질곡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개혁노선, 즉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의 공산주의체제로 돌아간다면 투자한 자본은 몽땅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한편으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극심한 생활물자의 부족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페레스트로이카가 국민에게 자유와 창의는 주었지만 빵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브레즈네프 독재 시대엔 상점에 물건만은 가득 차 있었는데 고르바초프의 시대엔 빵을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유야 간단하다. 소련의 특수한 유통구조와 정치적 이유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유통구조, 즉 생산공장에서 국영판매회사까지의 상품 이동은 당과 경찰등 국가권력기구의 엄격한 통제구조하에서 이뤄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 권력기구가 무너지면서 통제자는 사라지게 되어 당연히 정상유통질서는 암시장화되었고 매점매석이 활개를 쳤다. 이렇게 되니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유통이 제대로 안되니 상점에서 빵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더우기 생산조차 제대로 안되는 형편이다.

작년말과 금년초 소련에 극심한 식량난이 엄습, 급기야 소련정부가 요청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서방 각국과 동구권 일부 국가가 소련에 식량을 지원하고 나섰던 것은 좋은 예다.

소련의 작년도 식량 생산은 실제로는 대풍작이었다. 89년 소련의 곡물수확은 2억1천1백만t이었지만 90년은 2억4천만t이었다. 그런데도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식량 배급이라든가

긴급 지원요청등의 식량난이 생긴 것은 크게 보아 유통구조의 문제점때문이었다. 모스크바 시장이 작년말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이 식량을 매석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농장들이 식량을 숨기고 도시에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확된 곡물의 반정도가 현재 이들의 손에 그냥 쌓여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농장으로서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비싼 값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싼 값으로 팔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식량난에는 지역민족주의도 큰 몫을 차지했다. 소 연방내 15개공화국들이 독립과 주권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예컨대 소련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경우 예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수확만 하고 나머지는 들판에서 썩혀 버리거나 추수해서 개인소유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간 민족주의는 외국과의 경험에도 이제 큰 장애로 등장했다. 키에프시 근교에 생리대 생산공장을 세우려던 영국의 한 회사는 당초 소연방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정부의 갖은 방해공작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미국의 또다른 석유시추회사는 공화국정부의 반대로 아예 사업구상조차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이다.

전반적인 경제사정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락하는 자리에서 「서방국가들이 소련 경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세계는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서방국가들을 비난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소련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예측 전문기관인 美 와튼계량경제연구소는 소련이 작년에도 마이너스성장(-2.6%)을 한데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와튼에 따르면 소련 경제는 계속 침체국면을 걸어 2001년에 가면 89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소련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소련정부가 직접 작성한 바에 따라도 소련경제는 올해 지난 10월 발표된 비상경제계획안(일명 경제위기 타개책)이 성공리에 수행되어도 경제는 10%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성공리가 아닌 경우는 20~30% 경제가 후퇴하여 실업자만도 3천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르바초프는 최근 소련이 1/4분기에 국민총생산이 8% 감소했고 금년중으론 15% 감소할 것으로 말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와 소련정부는 다급할 수 밖에 없다. 최근 그는 자신의 특사를 미국에 보내 경제개혁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 또다른 특사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수들과 소련을 경제위기에서 구할 경제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약 2천5백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또 공개적으로 「5년 이내에 2천5백억달러, 3년 이내에 1천5백억달러의 현금이 수혈되어야만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라든가 「소련의 안정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만큼 서방은 1천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걸프전비 이상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소련내 보수파들로부터 구결행각으로 강력히 비난받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소련은 과거 「자본주의 약탈자들의 클럽」이라고 매도했던 서방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인 G7에 가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민들이 향후 5년간 그들의 적대국가를 위해 매년 30억달러 이상씩을 세금으로 추가부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고 일본도 북방4개도서문제등 영토협상을 보아가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만이 적극적이다.

이처럼 소련 국내 정치, 사회, 경제적 어려

움으로 서방 각국 기업들은 소련에 진출하는데 근본적으로 머뭇거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도 장애는 산적해 있다.

지난해와 올해 소련정부는 루블화를 평가절하한다든지 과실송금을 허용해준다는가 외국인인 100% 소련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는지하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아직도 소련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많은 법률적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 무역관련법규가 자주 바뀌는 것도 소련진출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소련에 돈이 없다는 점이다. 소련측에 상품을 팔고 나서 제때에 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이다. 물론 소련정부는 작년에 외국기업들에 대한 부채를 줄이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많은 서방 기업들이 소련으로부터 수출상품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서방기업들은 이같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련측 파트너들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련기업인들은 신용장의 개념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기업가들은 말한다.

소련의 대외부채는 지금도 상당하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련의 상품대금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89년 소련의 외채는 371억달러였는데 올해는 미와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545억달러가 될 것이고 95년엔 673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유력한 외화수입원인 석유의 경우 유가가 떨어져 외화 획득 기회가 줄었고 무기판매도 지난 걸프전 당시 미국무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어 역시 판매수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소련에 지원해준 경험자금 30억달러가 우리 기업에만 관련되어 사용되게 되어 있어 국내기업들이 당장 소련에서 돈을 못받을 염려는 없지만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민족주의도 서방기업

의 진출에 장애가 된다. 특히 기업들이 소련의 정정을 살피느라 지출하는 조사비용과 로비비용도 지역간 민족주의 때문에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소련에서의 장사의 성패는 인맥이 좌우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공화국정부 둘다에 인맥을 형성해야 하는데다 정치권이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조사비용은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소련에서 정보수집비와 에이전트관리비로 쓰는 돈이 연간 수십만달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소련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적극적인 주창론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처럼 다른 서방 기업들이 머뭇거릴 때……」라는 심정에서 진출하고 있고 따라서 성공시의 수확과 실패시의 손실이 동시에 모두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의 득실만 따질 수는 없다. 작년에 국교가 수립되었고 이에 따른 정치적 이득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번 30억달러를 지원하듯이 앞으로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계속 돈을 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보다 바람직한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소 공동연구사업과 같은 것이다.

소련은 주지하다시피 기초기술은 가위 세계적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로서는 탐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우리의 상품응용기술이 접목되면 한-소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예컨대 현재 추진되고 있는 48개의 공동연구 과제 가운데 이번에 합의된 9개 공동과제중 한가지인 다이아몬드의 합성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강도, 고경도, 투명성을 갖는 재료를 합성해내며 이를 재료에 입히는 코팅기술도 개발하는 것인데 성공할 경우 면도날이나 수술칼, 비디오테이프와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제조, 스피커등 음향기기의 핵심소재등에 넓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연구사업과 같은, 위험부담이 적고 그러면서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에 보다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알

림

당 협회지(계간 레미콘誌 1991. 3. 통권 27호)에 게재된 p. 108~p. 110의 국내 혼화제 시판품의 자료 表5는 각 제조회사가 제출한 내용으로서, 당협회가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의했거나 또는 동일한 시험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오니 활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